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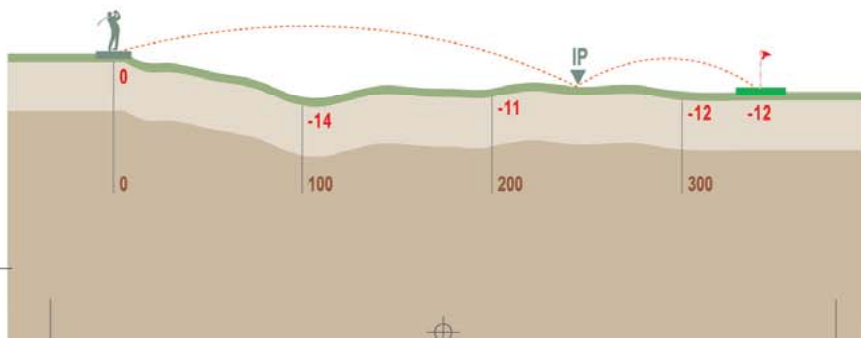
North Cape 1

Green Analysis



Pro TIP

티에서 그린까지 한눈에 다 들어 오는 내리막 파4홀로 몸이 풀리지 않은 첫 홀이지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좋다. 페어웨이가 넓어 티샷이 약간 슬라이스가 나도 우측법면이 도움을 준다. 그린 좌측으로 커다란 벙커가 포진해 있으나 그린의 매우 커 퍼팅만 조심하면 기분 좋게 첫 파를 잡을 수 있다.



1

North Cape

PAR 4
HDCP 7

● 238
○ 212
● 195
● 168

● 218
○ 192
● 175
● 147

50m

100m

1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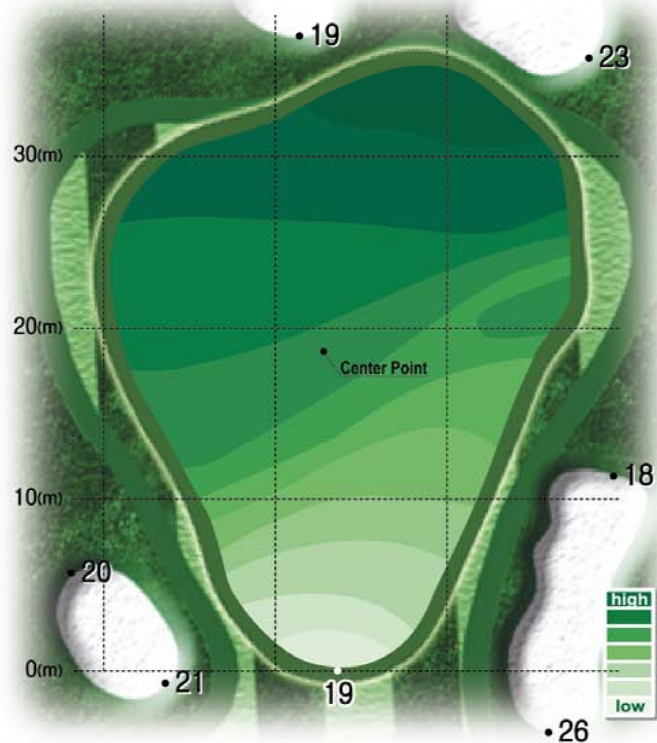
● 234
○ 208
● 191
● 163

● 342m
○ 310m
● 297m
● 26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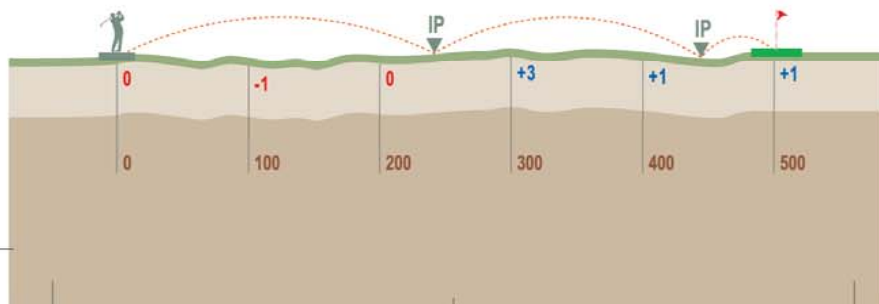
North Cape 2

Green Analysis



Pro TIP

파5홀로 좌측으로 커다란 자연 그대로의 암벽이 멋있어 보인다. 티샷은 조금만 밀려도 우측벙커로 쉽게 가니 멀리 보이는 좌측 암벽을 겨냥하면 페어웨이 중앙에 안착이 된다. 시야가 좁아 보여 세컨샷 공략이 부담스러우나 약간 좌측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한 공략 루트이다. 핀을 오버하면 그린골프이 심해 3퍼팅도 각오해야 한다.



2

North Cape

PAR 5
HDCP 6

● 281
○ 244
● 200
● 152

● 234
○ 197
● 153
● 105

● 246
○ 209
● 165
● 119

● 507m
○ 460m
● 427m
● 37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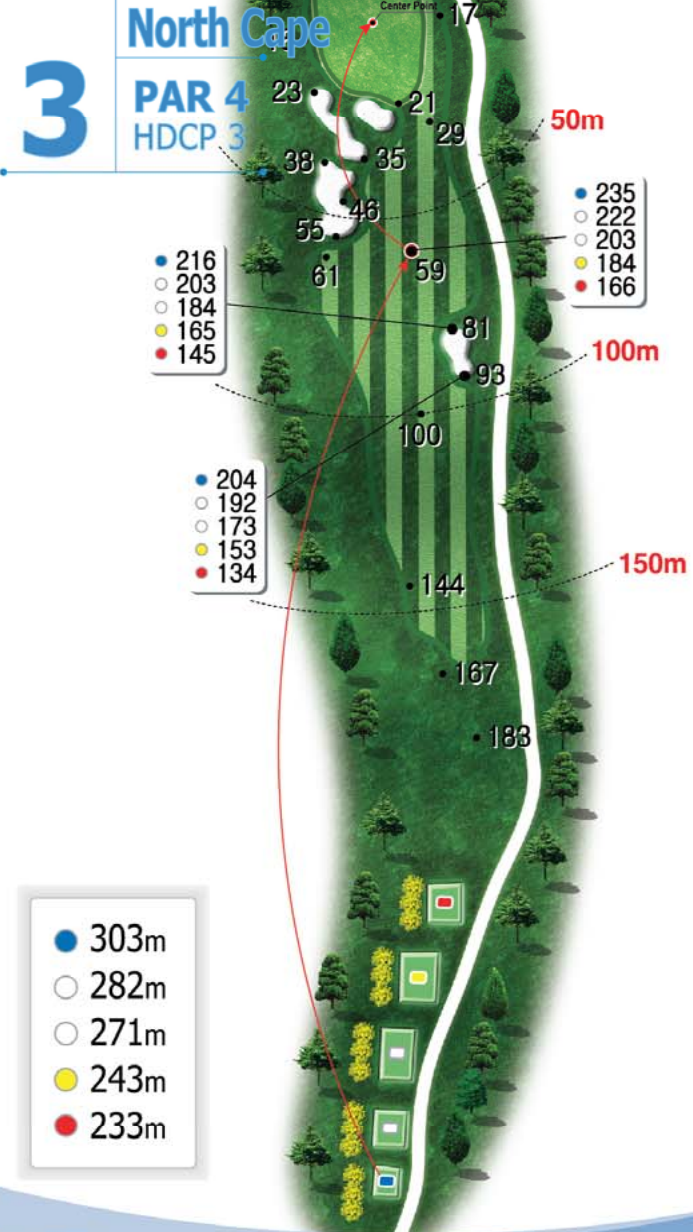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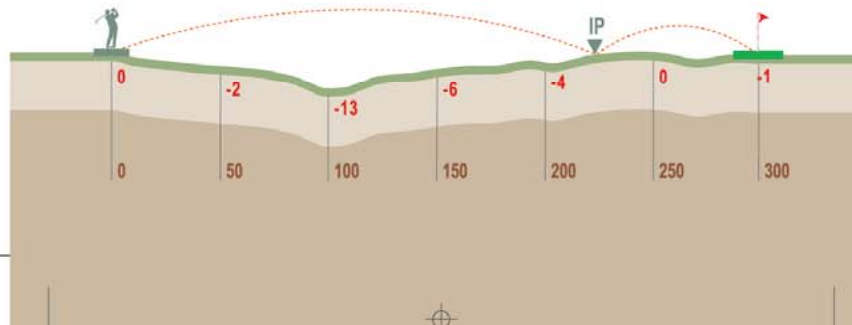
North Cape 3

Green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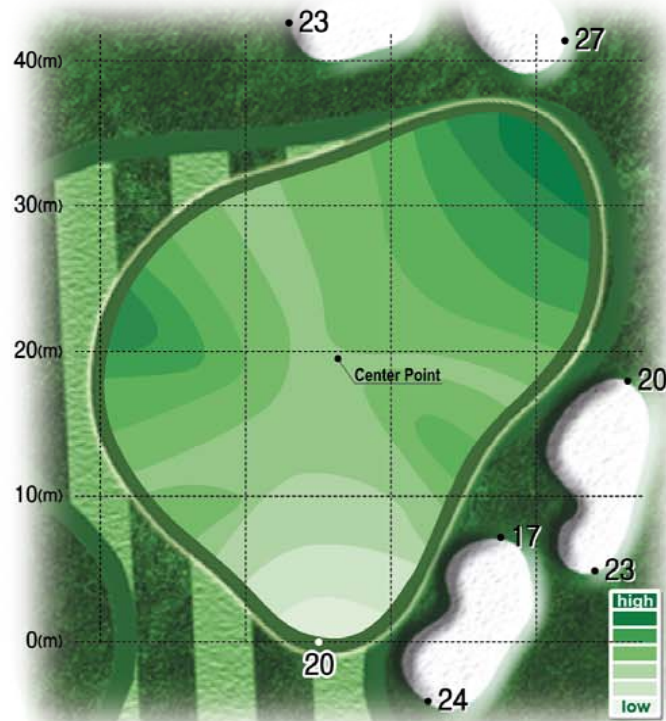
Pro TIP

거리가 짧은 파4홀로 티샷이 짧으면 움푹 내려앉은 페어웨이에 낙하되고 그린도 안 보여 공략 하기 어려운 홀이다. 좌측에는 범면 낭떠러지로 우측 산등성이 아래 bunker 보다 약간 좌측으로 최대한 멀리 티샷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린은 내리막 형에 자리잡고 있으나 체거리 다 보는 것이 좋으며 그린골곡이 제법 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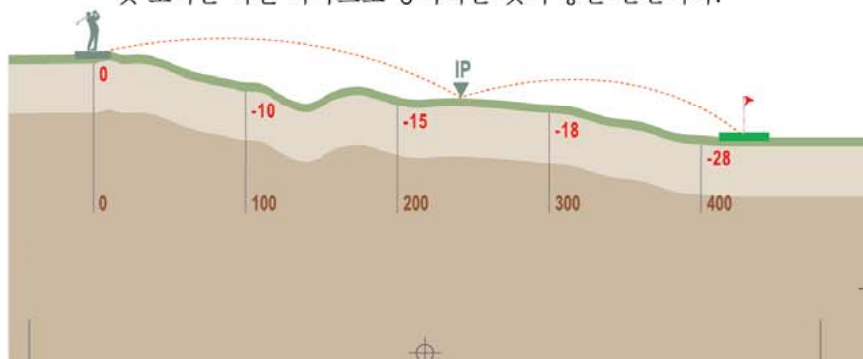
North Cape 4

Green Analysis



Pro TIP

숲으로 조성된 계곡을 직접 넘겨야하는 도전심을 불태우는 긴 거리 핸드1번 파4홀이다. 티샷이 자칫 조금만 밀려 맞아도 슬라이스로 변하니 좌측 옹벽 방향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 세컨 지점 에서 그린까지 남은 거리도 제법 길고 가파른 내리막 지형에 그린도 매우 커 우측 벙커를 피해 편을 직접 공략하는 것 보다는 약간 좌측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은 판단이다.



4

North Cape

PAR 4
HDCP 1



- 427m
- 402m
- 372m
- 347m
- 249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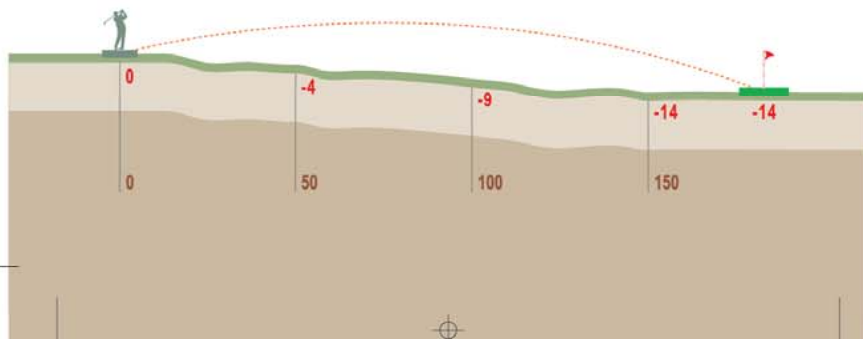
North Cape 5

Green Analysis



Pro TIP

내리막 파3홀로 별다른 장애물 없으나 그린우측 앞부터 뒤까지 커다란 벙커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린다. 티샷이 조금만 슬라이스가 나도 우측벙커로 가니 좌측을 겨냥하는 것이 온 그린 확률이 높다. 그린도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고 내리막에 맞게 한 클럽 적게 잡고 티샷하는 것이 온그린 시킬수 있는 정확한 거리 계산이다.



5

North Cape

PAR 3
HDCP 8

• 152
○ 125
•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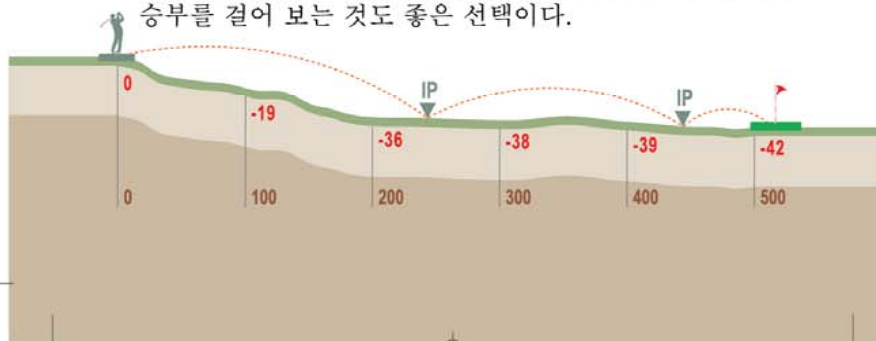
• 187m
○ 155m
• 127m





Pro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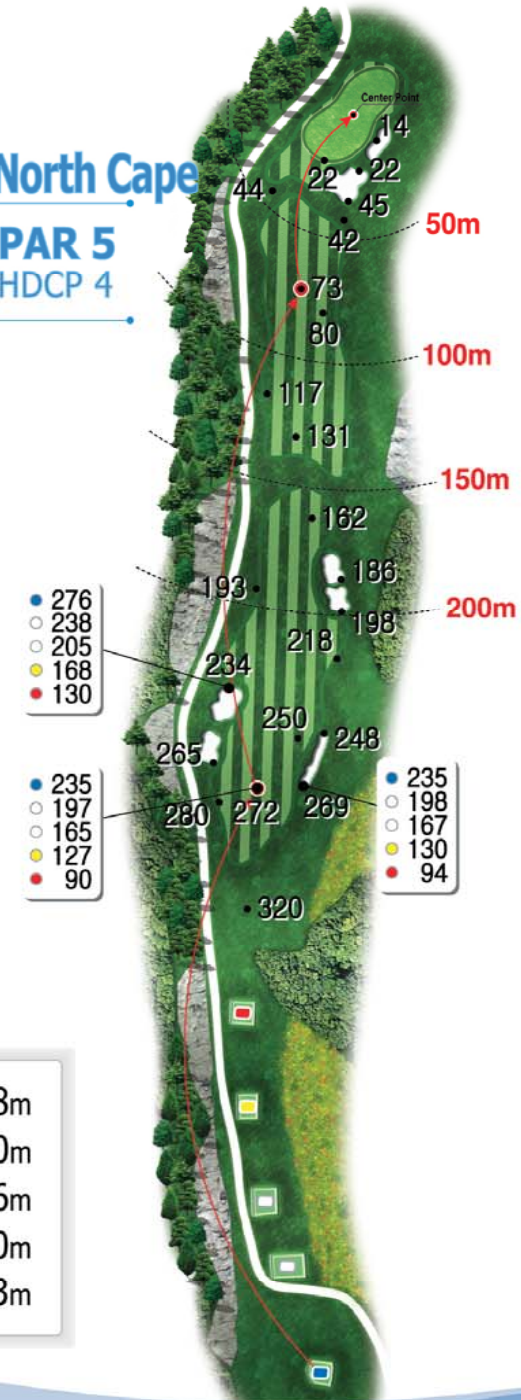
세컨샷 지점까지 급한 내리막 경사 파5홀로 코스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좌 우측으로 펼쳐진 자연 암벽 협곡이 아름다우나 티샷에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게 한다. 티샷시 왼쪽에 보이는 벙커 우측 방향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으며 장타자는 투온도 노려볼 수 있는 홀이다. 그러나 그린 앞 우측 벙커와 계곡이 있어 그린 좌측으로 보낸 후 어프로치로 승부를 걸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6

North Cape

PAR 5
HDCP 4



- 518m
- 470m
- 446m
- 400m
- 37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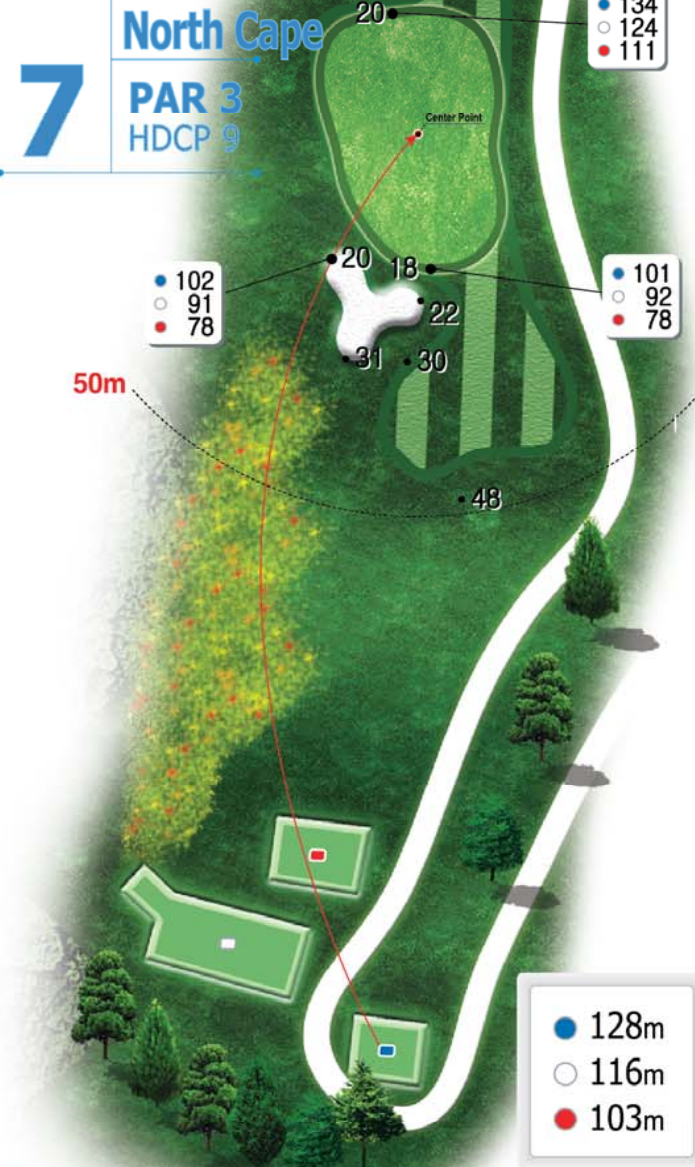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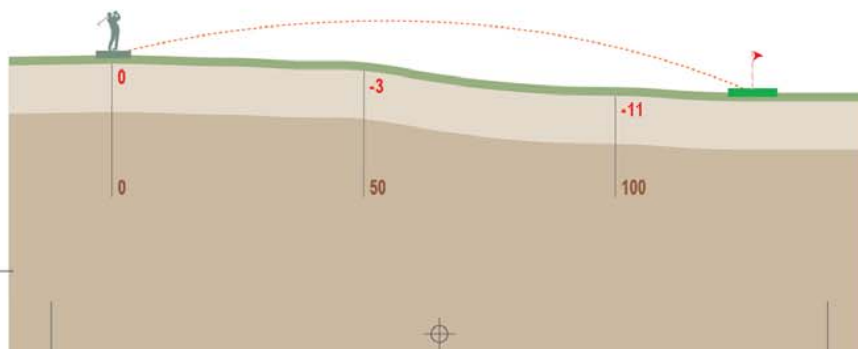
North Cape 7

Green Analysis



Pro TIP

매우 짧고 가파른 내리막의 쉬운 파3홀로 보이나 정확한 거리감을 가지고 정교하게 티샷을 해야만 온 그린에 가능한 홀이다. 좌측 낭떠러지 그리고 그린 입구를 거의 점령한 대형벙커가 도사리고 있으며 그린 넘어 전혀 여유 공간이 없다. 그린 중앙을 공략하는 것이 좋고 바람의 변수가 많은 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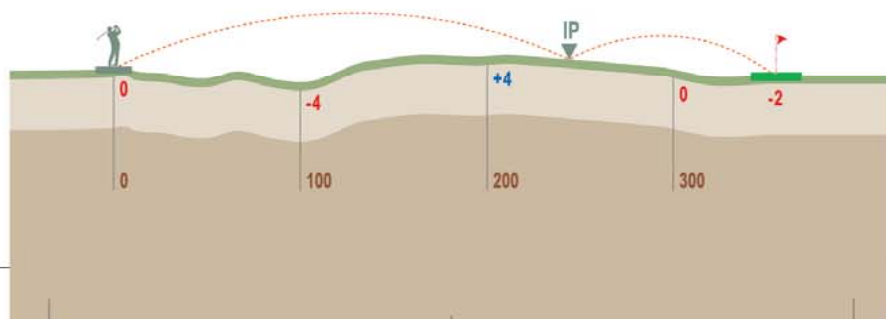
North Cape 8

Green Analysis



Pro TIP

좌측으로는 주변 풍경이 한눈에 다 들어오며 우측으로는 산 법면을 끼고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직선코스로 페어웨이가 매우 좁은 파4홀이다. 티샷은 방향성이 중요하며 카트도로 좌측으로 보내면 그린공략이 편하나 짧으면 그린에 보이지 않는다. 내리막 그린에 좌측 벙커를 감안하여 공략하는 것이 좋다.



8

North Cape

PAR 4
HDCP 2

• 236
○ 217
● 189
●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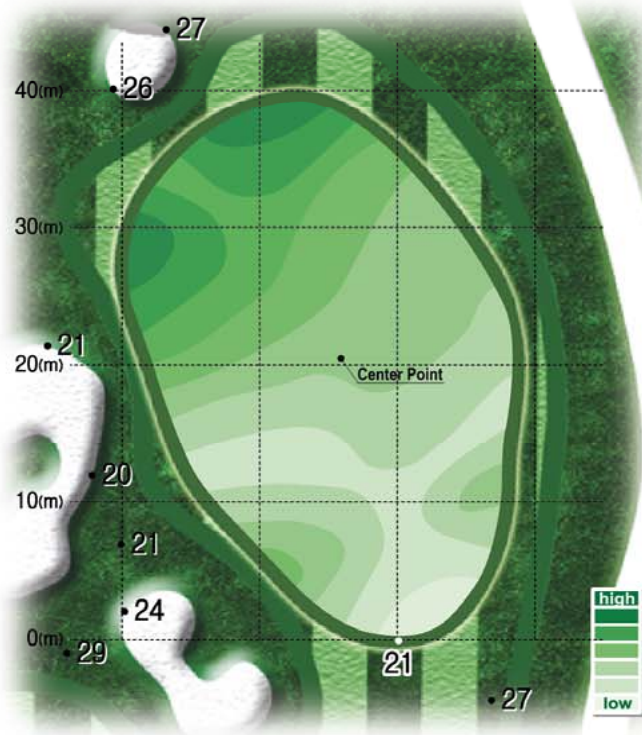
• 208
○ 188
● 160
● 135

• 352m
○ 323m
● 304m
● 279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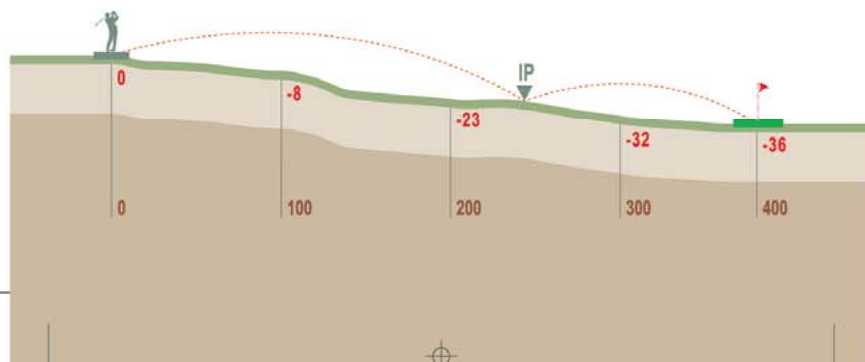
North Cape 9

Green Analysis



Pro TIP

클럽하우스가 한눈에 들어오는 내리막 파4홀로 티샷시 굴곡이 심한 페어웨이에 평평한 부분에 안착시키는 것이 좋은 공략이다. 그런 공략시 좌측 벙커를 주의해서 중앙 또는 우측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고 내리막을 감안하여 한클럽 짧게 공략하는 것이 좋다.



9

North Cape

PAR 4
HDCP 5

● 259
○ 229
● 187
● 158

● 222
○ 192
● 150
● 121

50m

100m

150m

● 242
○ 212
● 170
● 140

● 390m
○ 362m
● 312m
● 294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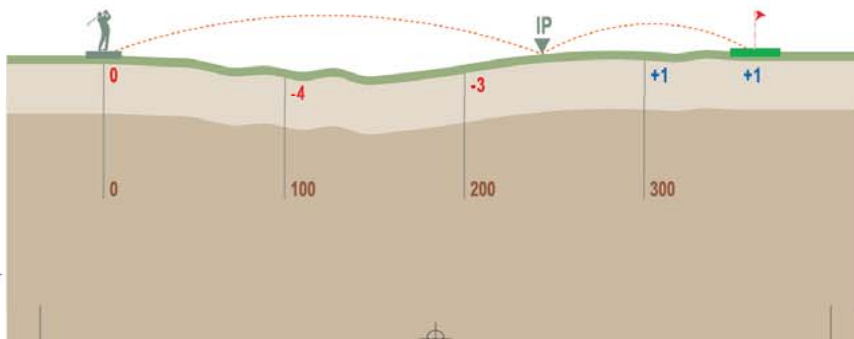
South Cape 10

Green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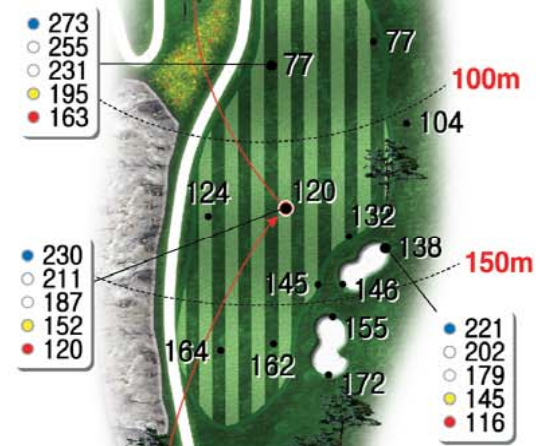
Pro TIP

계곡을 넘겨야 하는 부담스러운 파4홀로 좌측으로 그린까지 자연 암벽으로 풍광이 수려해 보인다. 세컨 지점부터 완만한 오르막으로 티샷이 짧으면 그린에 잘 안 보이고 슬라이스 나면 우측벙커가 기다린다. 폭이 좁은 그린에 우측 대형 벙커를 감안하여 그린 뒤 좌측벙커 방향으로 공략해야 온 그린에 용이하다.



South Cape 10

PAR 4
HDC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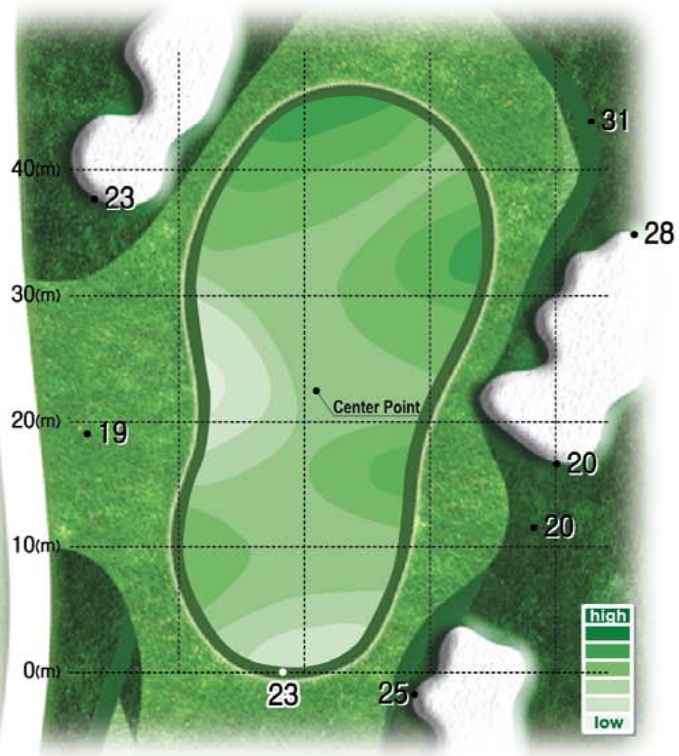


- 372m
- 321m
- 307m
- 272m
- 25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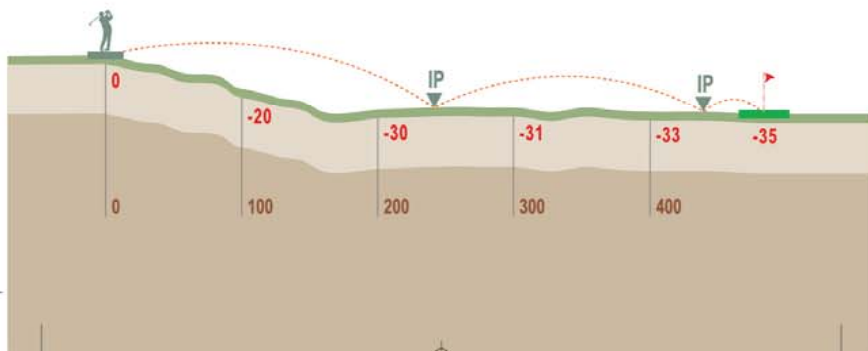
South Cape 11

Green Analysis



Pro TIP

전략이 필요한 내리막 파5홀로 그린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우측은 낭떠러지 계곡이므로 좌측 카트도로 끝나는 지점으로 티샷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미 허리같이 좁은 페어웨이를 넘기거나 또는 앞까지만 보낼 것인지 세컨샷을 하기 전에 미리 결정하는 것이 좋다.



11 PAR 5 HDCP 4

South Cape

- 243
- 210
- 175
- 137
- 116

- 495m
- 451m
- 433m
- 378m
- 37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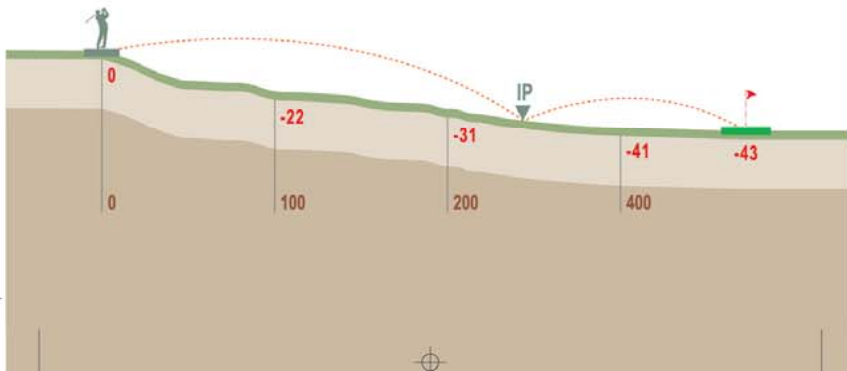
South Cape 12

Green Analysis



Pro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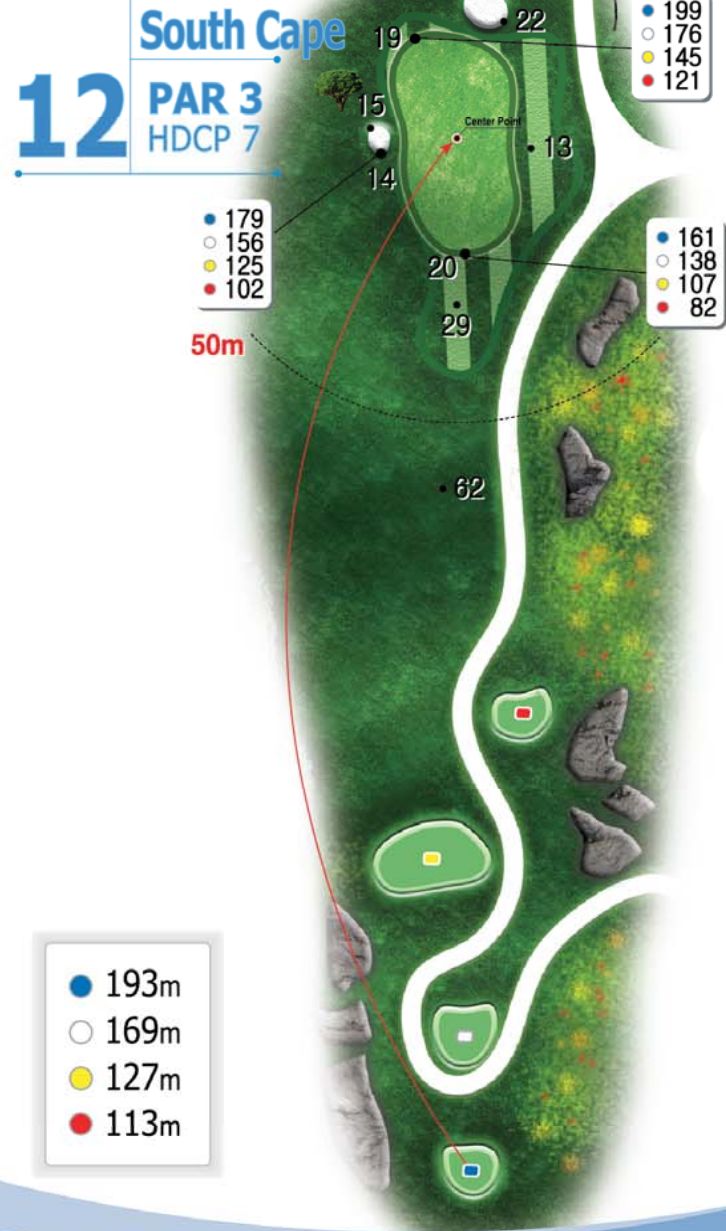
내리막 경사에 마을 전체가 한눈에 시원하게 펼쳐진 파3홀로 거리에 대한 부담감이 적은 홀이다. 티샷은 좌측으로 날려라지 위험이 있으나 그린 앞과 옆에 벙커가 없어 티샷에 안정감을 느낀다. 바람과 내리막을 감안하여 클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South Cape

12

PAR 3
HDCP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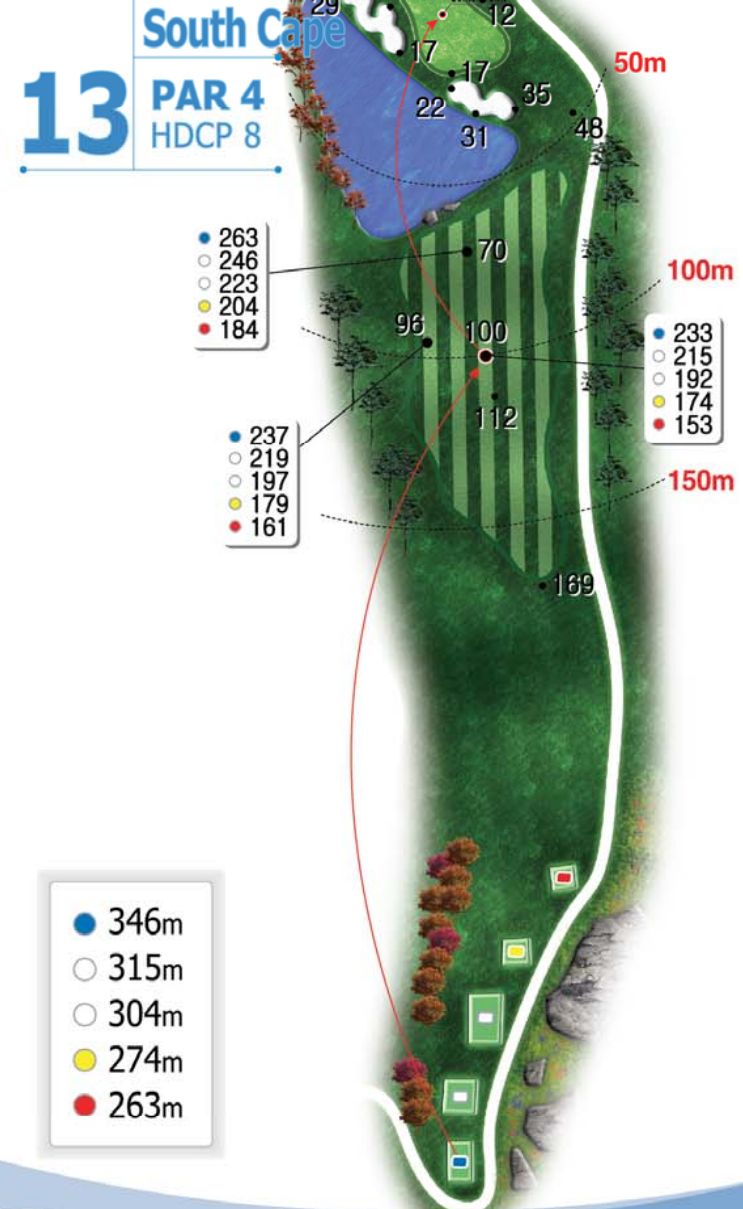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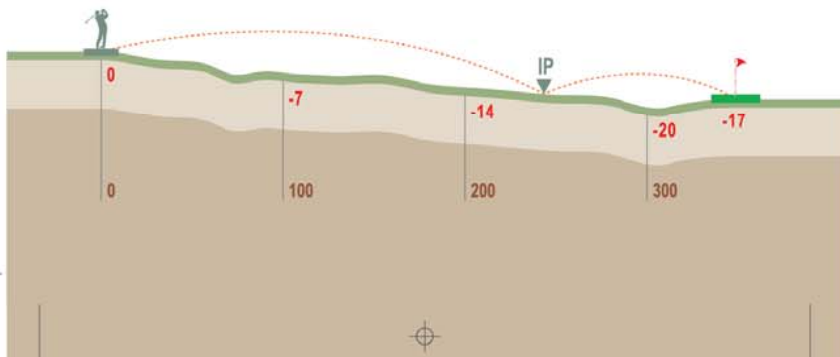
South Cape 13

Green Analysis



Pro TIP

티박스 전면 넓고 긴 계곡을 넘겨야 하는 티샷부터 심리적 부담감이 많은 내리막 파4홀로 구성되어 있다. 우측 암벽 법면이 다소 편안해 보여 티샷은 그린 앞 벙커 방향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세컨 지점에서 그린 앞의 벙커만 보이고 헤저드는 잘 보이지 않으니 반 클러치상 길게 공략하는 것이 온 그린에 실패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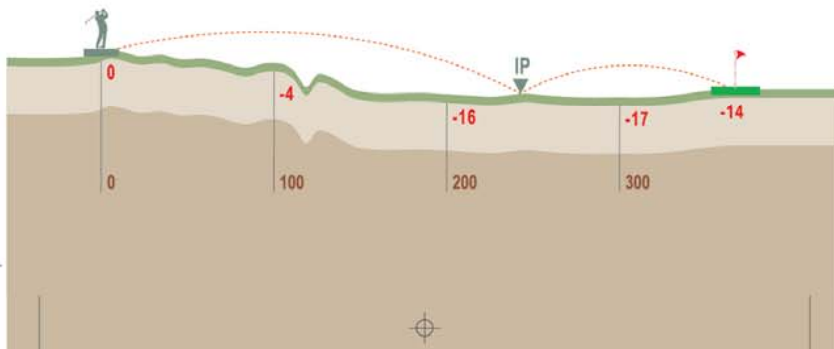
South Cape 14

Green Analysis



Pro TIP

우 도그백 내리막 파4홀로 좌측 범면과 우측 원형 보존림으로 티샷의 폭이 매우 좁아 보인다. 슬라이스 위험이 있으니 멀리 좌측 암벽을 보고 공략하면 중앙에 안착이 된다. 세컨 지점부터 그린까지 계속 오르막 경사로 다소 길게 보는 것이 온 그린에 유리하다. 그러나 그린이 또한 오르막으로 편보다 짧게 공략하는 것이 2퍼팅의 지름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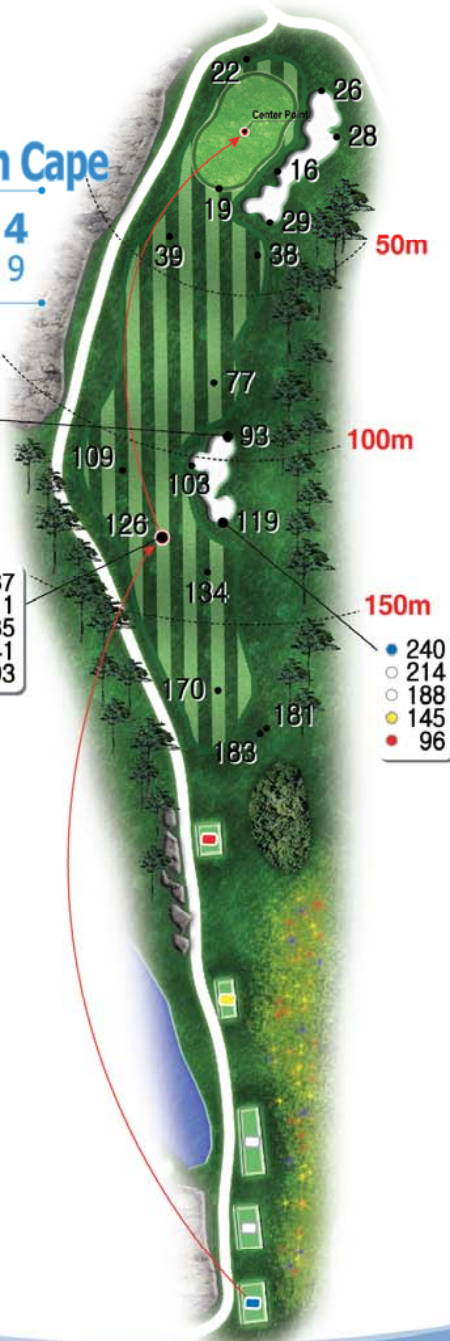
South Cape 14 PAR 4 HDCP 9

- 266
- 240
- 214
- 171
- 122

- 237
- 211
- 185
- 141
-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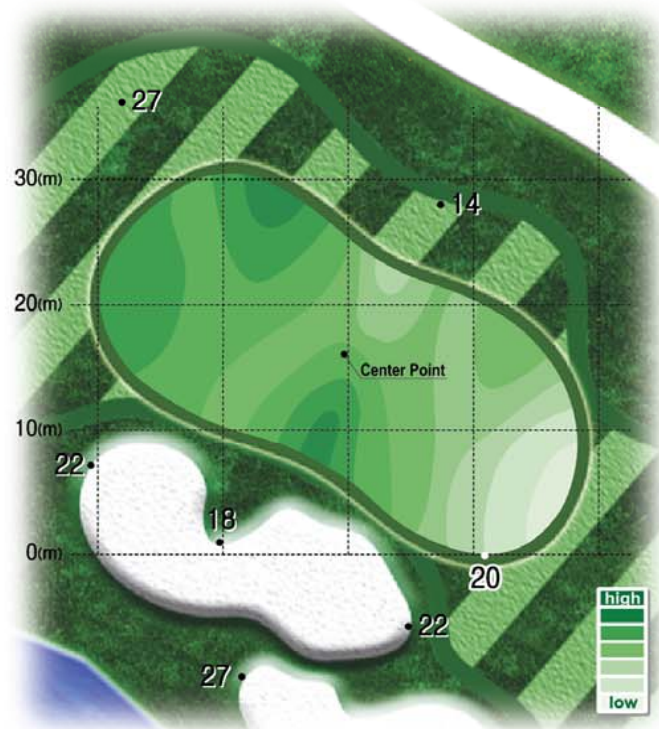
- 240
- 214
- 188
- 145
- 96

- 373m
- 337m
- 325m
- 267m
- 229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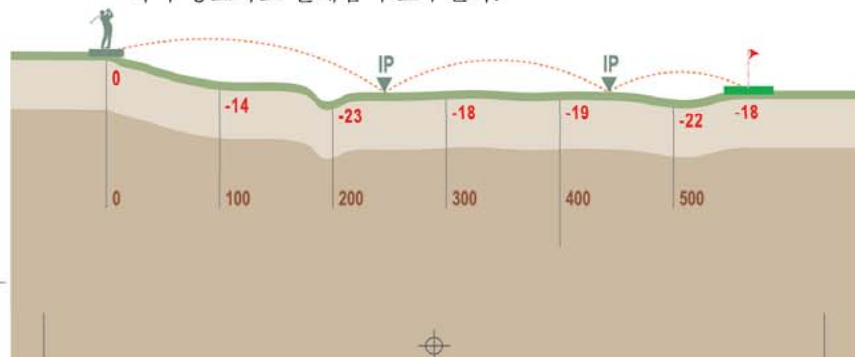
South Cape 15

Green Analysis



Pro TIP

풍광이 수려하고 시원하게 펼쳐진 가파른 내리막 핸디캡1번 파5홀로서 티샷부터 물과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 티샷은 최대한 멀리 보내 커다란 해저드를 넘겨야 한다. 세컨 공략은 그린 앞 실개천이 가로질러 투 온은 불가능하니 직전까지만 보내야 한다. 가로형 그린인 대각선으로 누워있고 대형병커들이 가로막아 정교하고 절제심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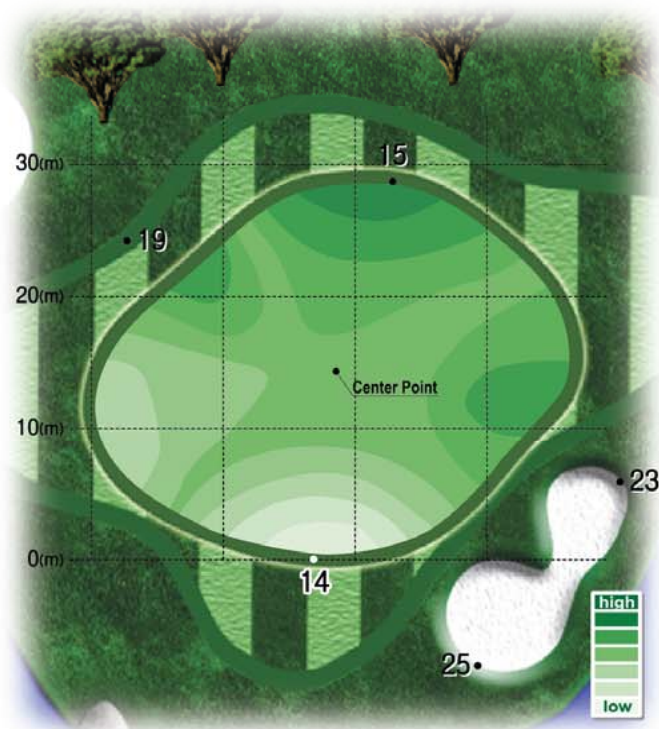


South Cape 15 PAR 5 HDC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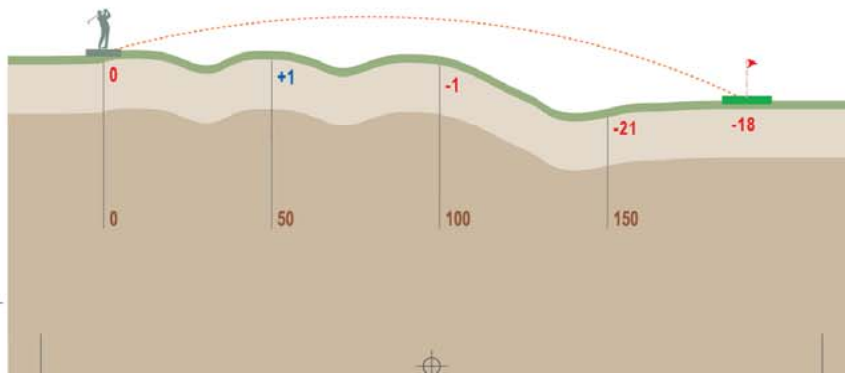
South Cape 16

Green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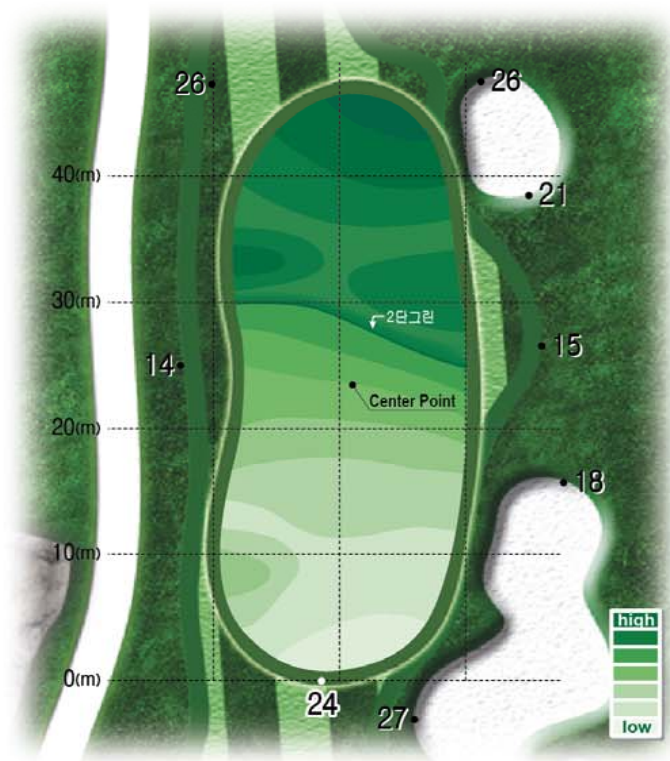
Pro TIP

전형적인 아일랜드 그린의 파3홀로 조금만 짧아도 해저드로 입수가 된다. 그러나 그린의 매우 커 비록 내리막 경사이지만 제 클럽 제거리 다보고 공략해야 온 그린에 성공률이 높다. 티샷은 그린 중앙보다 약간 우측이 안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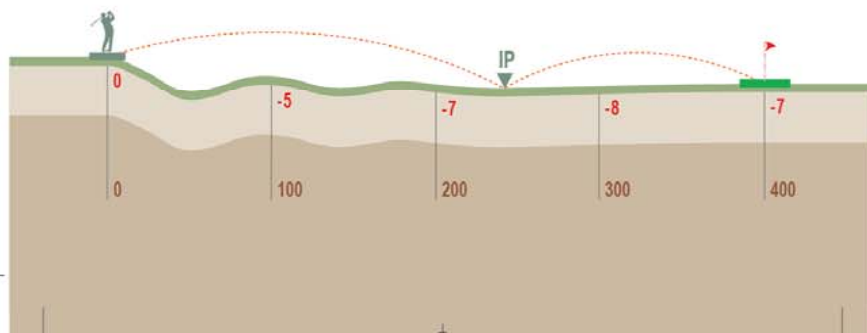
South Cape 17

Green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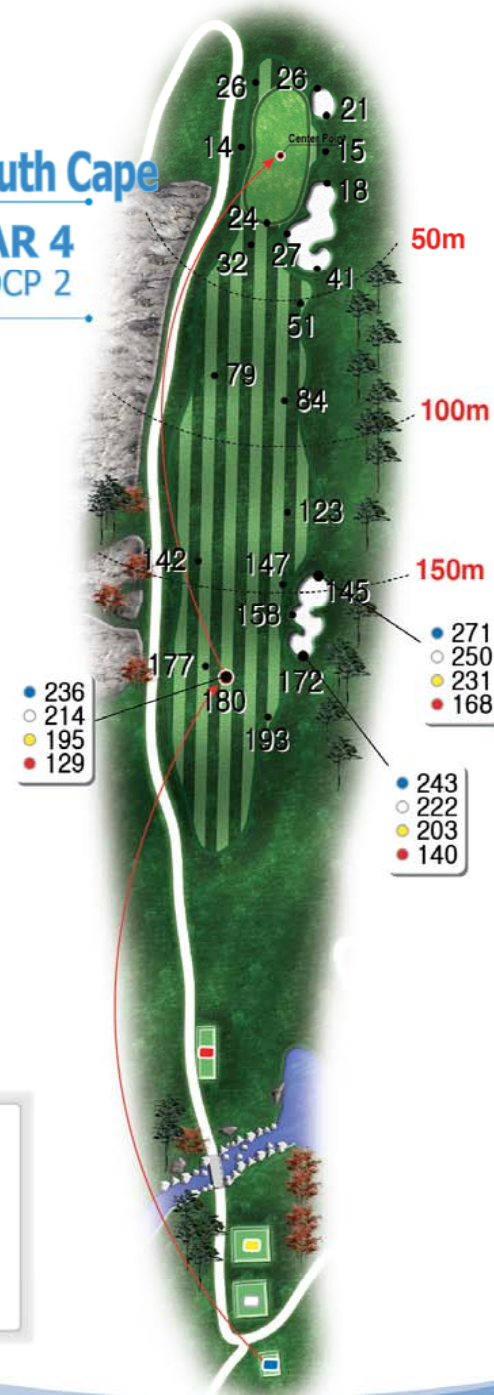
Pro TIP

거리가 상당히 길고 그린까지 시원하게 일직선으로 길게 뻗은 파4홀로 티샷부터 대각선 사면 계곡을 넘겨야 하는 부담이 많다. 티샷은 최대한 멀리 카트도로 우측방향으로 공략해야 슬라이스나도 구제 받을 길이 보인다. 그린까지는 우측 대형 벙커를 감안하여 좌측이 안전하나 2단그린으로 먼저 핀 위치부터 파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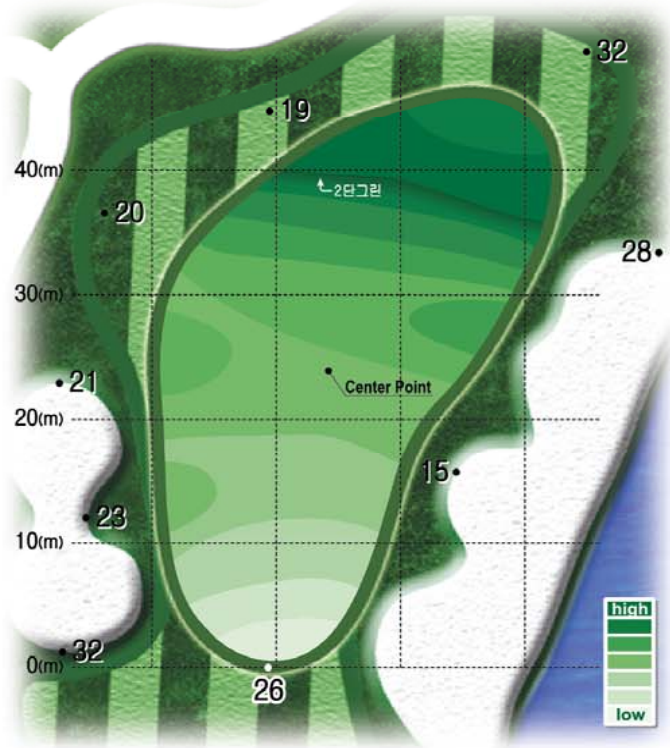
South Cape 17

PAR 4
HDCP 2



South Cape 18

Green Analysis



Pro TIP

병풍 같은 우측 암벽과 연못 같은 그린 주변 헤저드까지 아름다운 정취가 한눈에 다 내려보이는 긴 거리 파4홀이다. 페어웨이가 넓어 마음껏 티샷을 해도 좋으며 적게 보내면 그린 앞 헤저드를 넘기기 부담스럽고 차라리 3온 작전이 현명한 판단이다. 그린의 매우 크고 오르막 지형으로 핀을 직접 보는 것이 좋다.

